동체대비 보현행 실천한 선지식

걸어온 길

1935년 전북 정읍 출생
1947년 산외초등학교 졸업
1950년 서울 중동중학교 졸업
1951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5년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1년~1974년 금산사 주지
전북 종무원장, 불교전북교원 이사장, 금산상업중 · 고등학교 이사장
1965년~1967년 학교법인 대승학원 이사장
1966년~1981년
조계종 제2~7대 중앙종회의원
1968년~197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동국내) 이사
196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70년~1973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1971년 한국종교인협의회 총무
1973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1978년 조계종 제5대 중앙종회의장
1980년 4월~11월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
1980년~2012년 금산사 회주
1981년~2012년 영화사 회주
1982년~1985년 LA 반야사 회주
1988년 10.27 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 대표
1988년~1990년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장
1989년~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0년~1995년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1994년~1998년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1995년~1998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1995년~1998년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1996년 원광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
1996년~2006년 우리민족서로돕기 이사장
1996년~1998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1998년 중동고등학교 명예졸업 (47회)
1998년~2000년
대통령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
1998년~2003년
실업극복국민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1998년~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
2000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03년~2007년 함께일하는사회 이사장
2004년~현재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2005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종정상)
2008년~현재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2010년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
2009년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2010년 제1회 민세(안세홍 선생)상 수상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2012년 만해대상(평화 부문) 수상
2012년~현재 금산사, 영화사, 실상사 조실
2013년 미얀마 최고 작위 사따마 조디까다자(성자)' 수훈
2013년 대한불교진흥원 제11회 대원상 포교 부문 대상 수상
2016년 중앙승가대학교 명예문학박사 취득
2016년 여의대상 길봉사상 수상
2017년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한반도 평화의 메달수상
2017년 (사)한국지도종교지도자협의회 공로패 수상
2017년 조계종 원로의원
2018년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고문
2018년 조계종 대종사법계 품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 행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생애는 대한민국과 한국불교의 근 · 현대사 그 자체셨습니다. 세간의 학문을 익히고 출가하여 수행정진하며,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것은 물론 국가와 겨레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계인류의 공생(共生)을 실현하고자 한 순간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산외초등학교, 서울 중동중학교, 정읍농고를 졸업하고, 한국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종교적 실천수행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염원하셨습니다.

큰스님의 삶이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산사(山寺)에 머물러 갇혀 있지 않고, 동체대비의 보현행원(普賢行願)을 일생 동안 한결같이 견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가 사문으로서 참선수행과 병행하여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자비행도 더 없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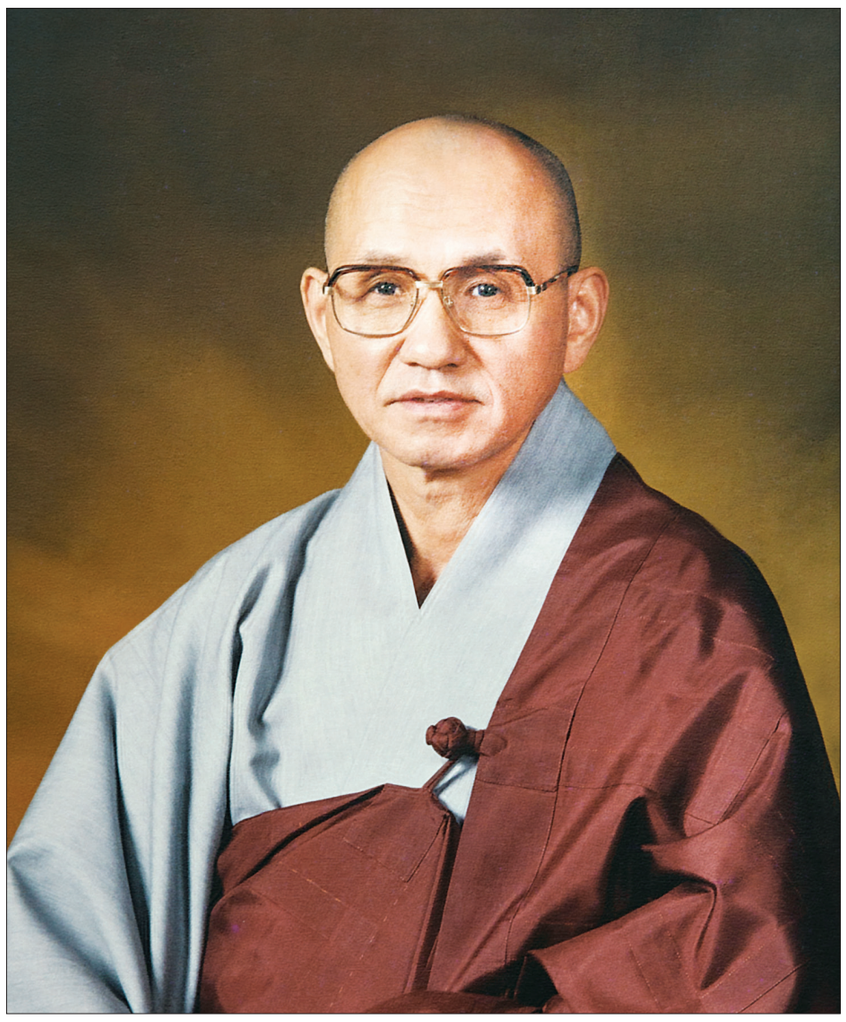
1966년 제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의 공직을 맡아 대한불교조계종의 튼튼한 초석을 다져놓으셨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의 여진으로 종단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과제를 직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예지(叡智)를 여실히 보여주셨고, 나아가 미래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 오로지 공심(公心)을 앞세웠기에 사부대중의 신망을 받아 1980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40대 중반에 총무원장이라는 대임을 맡은 큰스님은 일본식 왜색불교의 청산과 청정비구의 정화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내부의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의 시대정신을 선양하셨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당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제도개혁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도록 기여하셨습니다.

12 · 12사태와 5 · 17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정권의 지지성명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5 · 18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광주를 방문하여 부상당한 시민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봉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큰스님의 족적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육조혜능(六祖慧能) 선사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佛法在世間(불법재세간)
不離世間覺(불리세간각)
離世覓菩提(이세멱보리)
恰如求兎角(흡여구토각)
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한다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1980년 신군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장군인들을 동원하여 군홧발로 신성한 사찰을 짓밟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10 · 27법난을 일으켜 종권을 찬탈하고 불교를 탄압하였습니다. 그 이후 큰스님께서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고, LA반야사에서 참선수행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혜를 증장시키는 지증보살(智增菩薩)도 훌륭하지만 자비를 폭넓게 펼치는 비증보살(悲增菩薩)의 공덕이 수승하다는 〈화엄경〉의 가르침대로 큰스님은 일상에서 자비행을 초지일관 실천하셨습니다.

산중(山中)의 수행일변도에 집착하지 않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역동적인 보살행을 실천하였습니다.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198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1989),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1990),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1992)을 역임하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공헌하셨습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한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겸 이사장(1996),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겸 이사장(1996), 대통령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1998), 실업극복국민공동위원회 위원장(1998),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1998) 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고(社會苦)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량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종교계의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1994년 희망찬 개혁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큰스님은 승가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과 포교전법을 전담하는 포교원을 설립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주창하여 수행과 교화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998년 제28대 총무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우기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하여 많은 구제활동에 정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안위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나눔의 집을 설립하였고,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 받는 인류 구원을 위한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하여 자비의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큰스님은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에서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내게는 '제2의 출가'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우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80이 넘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29년 동안 무보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장시간 비행기에 고령의 몸을 싣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달려가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편하게 쉬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다"는 주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중생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항상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큰스님께는 수행처이자 도량(道場)이었습니다.

天地與我同根(천지여아동근)
萬物與我一體(만물여아일체)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큰스님의 자비행에 감동한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도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2000), 국민훈장 무궁화장(2011), 캄보디아 국왕 훈장(2010), 미얀마 최고 작위 '사따마 조디까다자' (2013), 조계종포교대상(2005), 만해대상(2012), 제1회 민세상(2010), 대원상(2013) 등을 수훈 또는 수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회고록에서 여생의 소망을 "몸담고 있는 종단, 민족과 사회, 지구촌의 인류를 위해 대중과 함께하는 자세로 심부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일 뿐"이라며, "소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출가자로서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수행정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걸어오신 큰스님은 2021년 7월 22일 세수 87세, 법납 68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비록 세연을 다하셨지만, 큰스님의 삶 그 자체는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밝은 등불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효 스님의 말씀을 빌려 큰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을 요약하겠습니다.

歸一心源(귀일심원)
饒益衆生(요익중생)
일심(한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

〈월주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 공식 행장〉

성승 태공 월주 큰스님 원적을 애도합니다

〈聖僧〉

추 모 사

큰스님께서 열반하셨다는 부음을 듣고 저희 부부는 가슴이 철껑 내려앉는 충격을 받고 오열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올해 세배는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셨습니다. 뵈올 때마다 워낙 강건하시고 말씀도 잘 하셔서 백세를 함께 사실 줄 알았는데, 이리 홀연히 저희들 곁을 떠나시니 이제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천하 영웅도 세월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별인 태공당 송월주 큰스님께서 87세의 세연을 거두시었습니다. 부처님의 수복(壽福)인 불세(佛歲)보다도 7세를 더한 천수를 누리셨지만 저희 불자들은 아쉽고 애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스님을 국가의 원로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군사독재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행자의 의연함을 지킨 참 스님이라고 말합니다. 17대, 28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영도력과 지혜를 통하여 종단 개혁회의의 선봉에 서서 종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급할 때 반석 위에 일으키셨습니다. 큰스님의 화두는 오직 조계종의 중흥과 발전이었습니다. 그 때 주창하신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우리 불자들이 나아갈 신행의 지표와 불교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003년 창립한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다"는 기치를 걸고 국경을 넘어 동남아 5개국 현지 구호사업을 전개한 업적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한 최고의 중생구제의 실천행입니다. 국제적인 NGO단체로 성장하여 급기야 2014년에는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을 2091기를 파주는 대업을 이루고, 수많은 학교를 세워줘서 한국불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러냈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정부는 국왕이 직접 최고성승(聖僧)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뜻있는 불자와 국민들은 큰스님이 하시는 이 일에 흔연히 동참하여 공업(共業)의 아름다운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도 매월 1만 원씩 후원하여 빈곤국가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급수공덕(汲水功德)을 짓는 것이 한없이 행복합니다.

제자가 큰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1981년 9월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하여 총무원장에서 물러나 개운사에 계셨고, 저는 개운사 옆에 있는 동국대학교 기숙사인 기원학사 사생장을 할 때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과일을 두 상자씩 보내준 은혜의 보답으로 생신날을 맞춰서 찾아뵈었지요. 그 때 조계종에서 전두환 군부정권 찬양법회를 거절한다고 10 · 27불교법난을 자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가 지난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는 허약한 모습에서 파탈하여 의연한 종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우리 기숙사 학생을 몰고 가서 전두환을 척살하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제자는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동국학원 명성여중(동대부여중)의 교법사로 부임하여 구의동 영화사에서 자주 뵈었고 40여 년을 모시는 유발제자가 되었지요. 특히나 1989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하실 때부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경불련 창립위원, 공해추방불교인모임(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창립위원 및 사무처장을 하면서 오늘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의 젊은 시절을 큰스님께서 하신 불교시민운동을 따라서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 때 시민운동을 했던 저희들은 "공해추방운동(환경). 불교인권위원회(인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불련,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협의회, 남북협력 우리민족서로돕기,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나눔의 집(위안부 돕기) 등 불교시민운동은 월주 스님 한 사람이 모두 한 것이네. 앞으로 한국현대불교사를 쓰게 되면 월주 스님뿐이네"라고 말했습니다. 큰스님의 원력은 참으로 대단했고 칭찬을 받을 만 합니다.

시민단체마다 지원금을 달라고 영화사에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단체가 큰스님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그때는 고승서화전이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젊은 스님이 돈이 없으면 서예글씨라도 써주면 그것을 팔아서 운영비에 보태겠다고 실제로 붓과 벼루, 종이를 준비해 간 일화와 '전법도생(傳法渡生)'이라고 쓴 작품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스님께서 서예를 하게 된 연원입니다.

제자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자 큰스님께서 "귀일심원(歸一心源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축하휘호를 써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 김법사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를 없애지 말고 잘 유지해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님의 명에 따라 영화사 거사회 법회를 10여 년을 담당하는 지도법사를 하였습니다. 큰스님은 저를 단련시키고 키운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앉아서만 성불할 수 없다. 진리는 세간 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불교의 전통 수행인 참선과 보현행을 함께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는 중도와 균형을 실천하셨습니다. 불교인의 수양은 심성 수양을 위한 참선, 경전 공부, 보살행 실천을 균형 있게 함께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균형감(6:4론)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잘 갖추시고 우리 불교종단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내신 원력보살이십니다. 국가의 원로로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 역대 대통령의 자문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상좌들도 모두 훌륭하여 기라성처럼 빛나는 한국불교의 대들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으신 분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스님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하얀 연꽃으로 피어나십시오. 부처님의 밝은 미소를 닮은 가을밤에 둥근달로 떠오르십시오.

불초 제자 김형중은 곡배(哭拜)하며 추도의 글을 올립니다.



김형중 / 前 동대부여고 교장